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8, No. 106, pp.407-420  
<https://doi.org/10.29212/mh.2018..106.12>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서 평]

# 장성(長城)과 군진(軍鎭)으로 본 명대사(明代史)

(『明代九邊長城軍鎭史』, 趙現海

中國社會科學院青年學者文庫 歷史考古研究系列, 2012)

김경록

## 1. 국가주도의 장성연구

서평의 대상이 되는 『명대구변장성군진사(明代九邊長城軍鎭史)』가 출판된 2012년 6월 5일자 광명일보(光明日報)를 비롯한 중국의 주요 신문의 장성관련 보도는 한국학계를 놀라게 하였다.<sup>1)</sup> 중국 국가문물국(國家文物局)이 기존 장성(長城) 관념과 판이한 발표를 하였기 때문이었다.<sup>2)</sup> 장성이 동쪽은 산해관(山海關), 서쪽은 가옥관(嘉峪關)으로 알고 있던 중국의 장성이 조사결과 동쪽으로 흑룡강성(黑龍江省), 서쪽으로는 신강(新疆) 위구르자치구까지 총 길이 21,196.18km, 관련 시설

1) 중국신문망(<http://www.chinanews.com/cul/2012/06-05/3940564.shtml>) 등.

2) 무엇보다 중국이 발표한 장성이 고구려, 발해의 성곽이나 장성을 포함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43,721곳이라는 것으로 기존 ‘만리(萬里)’의 범위를 넘어서는 규모였기 때문이었다.<sup>3)</sup> 구체적으로 장성의 범주와 개념을 확대한 중국문화유산국의 발표는 중국의 ‘장성보호공정(長城保護工程)’으로 구체화되었다. 일반적으로 중국 관광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만리장성의 이미지가 아니라 장성을 장체(牆體: 담과 벽 등 장성의 본체), 성보(城堡: 성이나 주위에 쌓은 둔병지 또는 거주지), 관애(關隘: 관문 혹은 요새), 봉화대(烽火臺), 적루(敵樓: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설치한 성벽의 망루)를 모두 포함한 방어를 위한 방어물 전체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진시황제로 대표되는 만리장성뿐만 아니라 ‘역대장성(歷代長城)’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현재 중국 영토 안에 있거나 중국사에 등장하는 모든 장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8년 2월 현재 중국문화유산연구원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장성은 단순한 역사유적으로서 한정되지 않고 중화민족의 정신적 상징이자 최대의 문화유산으로 장성의 2000년 역사를 자랑한다고 명시했다. 사회주의 국가 중국의 국가사업으로 정비 및 조사가 수행된 장성은 당연히 현재 중국지도부의 의도가 반영되어 “일대일로(一帶一路)”의 가치와 정책과 연관되어 국가와 지역의 부흥과 발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sup>4)</sup> 한편, 장성관련 경과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1961년 국가중점문화유산단위로 장성이 지정되었으며, 1984년 덩소평(鄧小平)의 지시로 의해 ‘장성보호공작(長城保護工作)’이 전면적으로 시작되었다. 1987년에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고, 2006년에 국무원(國務院)에서 『장성보호조례(長城保護條例)』를 반포하고 법적 기반을 완료하였다.

2012년 제정된 『장성보호조례』에 입각하여 중국의 중앙정부뿐만

3) 홍승현, 「중국의 ‘장성보호공정(長城保護工程)’ 과 장성 연구의 새로운 경향」, 『동북아역사논총』 45, 2014.

4) 중국문화유산연구원 홈페이지(<http://www.greatwallheritage.cn/CCMCMS/html/1/53/index.html>: 검색일 2018. 2. 11)

아니라 지방정부들도 장성관련 연구 및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활발한 장성관련 사업을 시행했으며,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장성관련 사업은 일면 역사유적으로 장성을 보호하고 연구를 촉진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국가주도의 사업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국가에서 제시하는 교조적인 지침이 연구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단점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장성의 범위와 개념의 문제이다.

역사에서 ‘장성’은 시대성을 학술적으로 검토하여 역사적 의미를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장성의 범위를 학술적 고려를 무시하고 장성 본체뿐만 아니라 부속시설, 관련 유적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실제 장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군사적 방어시설 내지 관련 유적이 있으면 장성으로 추정하거나 확정하는 경향을 보였다.<sup>5)</sup> 중국뿐만 아니라 어느 국가든 시대별로 군사환경과 군사·전략의 변화, 군사기술의 발전정도 등에 의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장성본체와 상관없이 지역별 군사목적에 따라 다양한 군사시설 및 편제를 마련하기 마련이다. 부분적인 군사시설을 모두 거대한 장성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면 장성의 학술적인 개념과 충돌한다. 장성이란 국가의 국방정책에서 의해 장기적이고 대규모의 군사행위로 시행된 결과물이며, 단순한 군사시설의 의미를 넘어 해당 국가가 상대세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정책을 전개하였는가를 반영한다.

또한, 장성은 군사적 시설이면서 국토(영역)의 의미와 함께 문화적 경계 역할도 한다. 길게 둘러쌓은 성(城)이란 의미에서 장성은 국가의 대규모 공력이 소요되어 자칫 무리하게 장성을 축조하면 국가의 재정적 고갈 및 노동력 동원으로 인한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때문

5) 中國國家文物局·中國國家測繪局, 「長城保護條例」, 『長城資源調查工作手冊』, 2007. 3쪽. 「보호조례」 2조에서 “장성의 牆體(성벽), 城堡, 關隘, 烽火臺, 敵樓 등을 포괄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조사방안」에 ‘관련 유적’이라는 항목을 포함시킴으로써 군사시설을 장성범위에 포함시킬 근거를 마련했다.

에 역사에서 위정자들은 개별 성곽의 축조 및 개수(改修) 마저 심각한 고민을 통해 시행하였다. 이는 장성이 국가운명을 좌우하는 대규모 국가 사업임을 반영한다.

장성의 축조뿐만 아니라 군사사 측면에서 장성은 해당 지역에 강력한 군대를 주둔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다. 장성이 축조되는 지역이 대체적으로 변경지방에 해당되며 이는 군사적 위협이 항상 존재함과 동시에 무엇보다 험준하거나 농경이 어려운 지역에 해당된다. 주둔하는 군대의 생활환경이 열악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기에 국가 차원에서 병력동원체계, 군수지원체계, 지휘체계를 최대한 동원하여 유지하고자 하였다.

장성이 존재하는 곳이 변경지방이란 말은 해당 국가에서 인식하는 국경의 개념과 대체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국가가 자신들의 영역범주를 의미하는 것이며, 해당 장성을 벗어난 지역은 위협스럽고 국가의 명령이 권위를 가지지 못하는 지역이란 의미이다. 그럼으로 역사에서 장성은 해당 국가의 국경선으로 인식한다.

여기서 한 가지 장성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비록 국경으로 인접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변국과의 관계에 의해 활발한 교류와 외교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장성을 쌓고 강력한 군대를 주둔시켰다는 것은 대상 국가와 군사적 긴장관계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국경으로서 장성은 교류보다는 군사적 충돌의 관계였음을 의미한다. 물론 고대부터 존재했던 장성이라면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역사학에서 장성은 주목되는 역사적 존재라 할 것이다. 앞에서 중국이 진행하는 장성보호프로젝트는 역사학적 관점에서 역사분쟁과 역사적 오류를 양산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할 것이다. 첫째, 장성의 범위에 장성본체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 전반을 포함시킴으로 일정한 선으로 이어진 장성이 아니라 개별 점으로 군사시설마저 장성으로 확정하는 오류이다. 이러한 목적은 명확하다. 장

성을 보다 길고 넓게 설정하기 위함이며, 장성이 역사적으로 국경의 의미를 가지므로 역사적 국경을 확대하고자 함이다.

둘째, 장성의 개념을 역대장성이란 모호한 개념으로 설정함으로써 시대성을 망각하고 현재의 중국영토에 포함된 모든 장성 및 군사시설로 설정하여 통합된 중국사의 모습을 상징하기 위함이다. 이는 역사적 존재로서 중국과 치열하게 대립하며 군사적 목적으로 축조한 장성마저 중국사의 장성으로 포함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명백한 역사오류이며 주변국과의 역사논쟁을 초래하는 사업이라 할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목적에서 장성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장성관련 프로젝트와 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장성학(長城學)”이란 이름으로 별도의 학문영역으로 키워가고 있다. 중국에서 장성학이란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였으며, 이후 강역문제와 연계되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sup>6)</sup>

한편, 장성관련 큰 변화시점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있었다. 2004년 장성이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2004年度世界瀕危遺產名錄]’에 등재되자 중국정부는 ‘장성보호공정(長城保護工程)’이란 장성관련 대단위 사업을 계획하고, 2005년 말부터 9개 분야로 구성된 『장성보호공정총체공작방안(長城保護工程總體工作方案)』을 마련하여 추진했다.<sup>7)</sup> 이 가운데 「보호조례」의 경우 중국정부가 지향하는 장성관련 사업의 방향을 잘 보여준다. 2조에 “본 조례에서 지칭하는 장성은 장성의 성벽, 성보, 관애, 봉화대, 적루 등을 포괄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학술적 자율성에 따라 활발하게 수행되어야 할 개념정의가 무엇보다 국가에서 제시하여 이와 다른 연구를 제한하였다.<sup>8)</sup> 물론 역사유적으로서

6) 羅鐵文·董耀會, 「長城學的幾個基本理論問題」, 『長城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吉林人民, 1995.

7) 中國國家文物局·中國國家測繪局, 「長城保護工程(2005~2014年)總體工作方案」, 『長城資源調查工作手冊』, 2007.

8) 홍승현, 「중국의 ‘장성보호공정(長城保護工程)’ 과 장성 연구의 새로운 경향」, 『동북아역사논총』 45, 2014. 347~349쪽.

장성을 조사하고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지만, 국가주도 역사사업이란 한계와 교조주의적 측면이 분명하다.

## 2. 장성과 변강개념을 넘어

1978년생으로 하남(河南) 기현(杞縣) 출신인 저자 자오시엔하이(趙現海)는 1996년부터 2005년에 이르기까지 동북사범대학(東北師範大學) 역사문화학원(歷史文化學院)에서 수학했으며,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도교수는 자오이펑(趙軼峰)교수로 동북사범대학의 역사분야를 대표하는 학자이다. 이후 2년간의 박사후과정을 거쳐 2007년 중국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명대 장성, 군진, 군사사 연구에 매진하였다. 저자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방문학자로 서울대에서 연구를 하기도 하여 한국학계의 역사연구경향에 대한 이해가 높은 편이다.

본 책자는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출판한 것으로 명대 군사사 연구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책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상, 하권으로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되었다.

### 上册

導論 “中國邊疆假說”視野下的長城制度史研究

第1章 明初“復宋”明流下的幽雲舊疆與太行山關隘防禦體系

第2章 洪武中後期“核心邊疆”異質分層化與“口外”陰山烽堡攻防體系

第3章 明初“襲元”暗流與北疆九王守邊制度

第4章 明代九邊長城鎮守總兵制度起源“職官化”與權力制約

第5章 十五世紀前後亞洲內陸地緣政治與西北邊疆甘肅寧夏二鎮最早建立

第6章 明前期核心邊疆司質一體防禦化與宣大二鎮長城防禦體系

第7章 明中期遼東鎮“邊牆”始修與薊州鎮“戰術長城”防禦體系

## 下冊

第8章 河套防禦“弱點”與明中期延綏鎮棄地守牆長城防禦模式

第9章 明中後期蒙古駐套與陝西山西臨洮三鎮內長城防禦體系

第10章 明後期東北亞海陸地緣政治與十七鎮長城防禦體系

第11章 明代九邊長城鎮守太監“外官化”與“三堂共政”軍政體制

第12章 明代九邊長城軍鎮巡撫“軍事化”與“以文制武”模式

第13章 明中後期九邊長城總督制度與“一門兩院三堂”軍政體制

結 論

參考文獻

본 책자의 내용을 장별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저자는 본문에서 본격적인 명대 구변의 장성군진사 서술에 앞서 중국의 변강에 관련한 다양한 가설과 연구사를 상세히 정리했다. 도론(導論)에서 저자는 “중국변강가설(中國邊疆假說)”의 관점에서 장성제도사 전반에 대한 연구사를 정리했다. 저자가 주장하는 “중국변강가설”은 변강이 중국의 강역을 의미함과 동시에 군사적 충돌뿐만 아니라 시대별 위정자들이 인식하였던 국경선으로 문화교류의 길목이라는 주장이다.

변강을 중화주의적 관점에서 주장하는 중국학계의 흐름과 조공체계로 인식하는 서구학계, 그리고 최근에 문화권으로 분류하는 흐름에 이르기까지 일괄하고 중심지와 변강을 구분하되 변강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여 자신이 상정하는 중국변강가설의 핵심인 문명교류의 중개지라 주장한다. 특히, 핵심변강이란 개념을 설정하고, 명대 시대흐름에 따라 변강의 변화가 있었으며, 전체 변강을 조망하여 중시되고 군사, 문명의 기능이 강조되었던 변강을 핵심변강이라 하였다. 핵심변강은 태행산을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시대에 따라 군사적 관심사는 북평으로 요동으로 대동으로 감숙으로 영하로 이동하였다고 주장한다. 기존 중국에서 유행하는 장성학의 차원이 아니라 저자는 장성제도사(長城制度史)에 주목하여 장성의 기원, 변화, 신축 및 개축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였다. 또한, 중국 고대의 군진(軍鎮)이 가지는 의미를 개념

정의하고, 명대 구변장성(九邊長城)에 설치된 군진의 위상을 설명했다.

1장은 명초(明初) 송나라의 회복(復宋)이란 흐름 속에서 유주(幽州), 운주(雲州), 태행산(太行山) 등 전통적인 관방체계를 중심으로 변방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을 치밀하게 살펴보았다. 원말 사회혼란으로 성립된 명나라는 여전히 강력한 몽골군의 존재, 요동지역에 주둔한 북원세력, 운남 등에 응거한 몽골세력 등 군사적 문제로 홍무제가 인식한 변강은 서쪽으로 유주, 남쪽으로 운주, 북쪽으로 태행산을 경계로 성립되었다고 보았다. 현실적 문제와 함께 원나라 이전의 송나라를 회복하려는 정치적 선언에 따라 비록 무장세력이 보다 강력한 정벌을 주장하였지만, 홍무제가 송대의 영역을 변강으로 인식함으로써 제한적으로 변강정책을 추진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명대 홍무제와 영락제에 의해 강력한 확장정책이 추진되어 주변국을 복속시키고 국제질서의 주체국으로 위상을 높였다는 연구경향과 달리 저지는 면밀한 사료비판을 통해 홍무제가 명초 제한된 변강인식으로 방위체제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2장에서 저지는 홍무 중·후기에 핵심변강(核心邊疆)이 보다 확대되어 북쪽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북평(北平)지역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몽골군과의 군사충돌이 진행되면서 점차 명은 태행산에서 북평으로 변방중심이 이동하며 관방체제가 형성되었다. 홍무 20년을 지나며 명군은 북평을 넘어 요동으로 진출하면서 요동경략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이 결과 요동을 점령하고 동쪽으로 백두산에 이르기까지 관방체계를 형성하였다고 서술했다. 이러한 서술은 중국학계의 시각을 반영한 서술이다. 홍무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핵심변강의 동부는 요동을 넘어 대녕(大寧)으로 확장되었으며, 여전히 몽골과의 공방전은 태행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홍무제는 안정적인 변방의 군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와 농경을 병행하는 위소체제를 갖추고자 했다. 특히 몽골과 달리 요동지방은 농사와 목축사회를 영위하던 지역으로 명의 군진 역시 지역성에 따라 둔전을 경영하면서 농목을 병행했다. 결론적으로 명초



핵심변강이었던 태행산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요동진의 방어체계와 서쪽으로 몽골군의 침입에 대한 관방체계가 구축되었으며, 이는 황하를 중심으로 동서에 방어체계가 형성되는 형상이었다.

3장은 저자의 학문적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어 명대 군진제도가 원대 종왕출진제도(宗王出鎭制度)에서 유래하였음을 세밀하게 밝혔다. 실제 명대 각종 제도는 전통적인 중화문명의 측면도 있지만, 원대 제도를 계승한 측면이 많다. 원대에 가산제(家產制)의 정치전통과 종왕출진제도를 모방하여 홍무제는 왕자를 분봉(分封)하여 지방군사권을 황제권력에 집중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봉제도와 제왕(諸王)의 군통수는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 결국 홍무말년에 이르면 제왕이 주요 변경에 책봉되어 군사력을 장악하였다. 물론 이러한 공신세력을 경계한 홍무제의 군사정책은 건문연간에 정난지역(靖難之役)이라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4장은 명대 구변장성에 설치된 군진에 전문무장을 파견하여 진수총병제(鎭守總兵制)를 시행하게 된 과정과 이를 “직관화(職官化)”와 권력 제약이란 측면에서 정리했다. 변방에 강력한 군대를 주둔시키고 지휘관에서 통수권을 위임한다는 것은 전근대 왕조국가에서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이를 제약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지만, 정작 전쟁이란 극단적인 상황에서 현지지휘관에게 권력을 위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를 중국 고대사에서 “임의로 필요하면 권력을 행사하라(便宜行事)”는 개념으로 권력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원대에는 총병제도(總兵制度)가 있어 황제에게 병력을 부여받은 지휘관이 군사지휘력을 행사했다. 원말명초 혼란기를 경험한 홍무제는 무장에게 권력을 부여하면서도 직권을 최대한 나누어 상호 경쟁 및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즉, 중앙에 오군도독부(五軍都督府)를 설치하여 군령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지만, 병부에서 군정권을 행사했다. 또한, 유사시 오군도독부의 무장을 임명하여 변경에서 군사력을 지휘하도록 했다. 그러나 북쪽의 변경지

역에 설치된 구변장성의 군진에는 지속적인 군사활동이 필요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총병관을 두었다. 이들 총병관을 견제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행도독부(行都督府)를 설치하였다. 또한 명대 구변장성의 군진에 들어진 총병관은 보다 세부적으로 서열화가 이루어져 보다 직관화(職官化)되었다. 중앙에서 최대한 변경의 군사세력을 통제하고자 하였지만, 중앙권력이 약화되면 자연스럽게 변경의 군사세력이 변진화(藩鎮化)되는 경향이 있다. 명 후반기에 이러한 경향성이 나타났다.

5장은 15세기 전후 중앙정치세력의 갈등양상과 서북변강의 감숙진(甘肅鎮), 영하진(寧夏鎮)을 중심으로 오랜 군사충돌이 발생하자 명초 변경 군사세력에 대한 견제가 약화되는 경향이 발생했음을 정리했다. 서쪽에서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한 몽골세력에 의해 감숙진은 그 중요성이 강화되었으며, 명 중후기 북로남왜(北虜南倭)로 표현되는 북노의 핵심충돌이 감숙과 영하에서 발생했다.

6장은 명대 서북쪽 장성군진의 핵심이었던 선부(宣府)와 대동(大同)을 중심으로 변화된 방어체계를 사료를 중심으로 잘 정리했다. 영락연간에 몽골에 대한 원정 및 군사충돌이 수시로 발생하였던 선부와 대동은 명 전기에 최대 군사요충지였다. 영락연간에는 여러 차례의 몽골원정을 비롯해 공세적인 군사정책이 시행되면서 명의 변강방어체계가 관외(關外)로 확대되어 관외장성방어체계로 이어졌다. 그러나 홍희, 선덕연간에 이러한 공세적 변강방어체계가 다시 남하하여 진수총병제도(鎮守總兵制度)로 확립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 장성방어체계에 화기(火器)가 주요 병장기로 보급되었던 점은 흥미롭다.

7장은 명 중기 요동진의 특징을 변장(邊牆)으로 인식하고 수도 북경을 북쪽에 위치한 계주진(薊州鎮)이 중시되는 과정을 정리했다. 다른 장성군진과 달리 요동진은 육로와 해로가 공유된 지역으로 몽골과 여진족과 끊임없는 갈등이 발생했다. 정통연간에 명은 요동경략을 수정하여 요동변장(遼東邊牆)을 쌓고 방어적인 군사체계를 갖추었다. 이후

명은 요동변장을 기준으로 요서와 요동을 분류하여 다스렸다. 명말에는 요동방어체계는 영원(寧遠)과 동강(東江)을 중심으로 장성방어체계를 갖추었다.

8장은 하투(河套)방어체계가 약화되어 서쪽으로 명의 군사방어가 변화된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지역은 연수진(延綏鎭)을 중심으로 방어체계를 구축했지만 지속적으로 후퇴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주변 지역을 버리고 군사기지로 백성을 모아 방어하는 군사체제로 구변장성을 기준으로 내지는 다스리되 불필요한 지역은 버리는 군사정책(棄地守牆)이 시행되었다.

9장은 명 중후기 몽골군이 출몰한 섬서, 산서, 임조(臨洮)의 3진을 중심으로 방어체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었는지 상세히 정리했다. 특히 이 지역은 육반산(六盤山)의 험준한 지리여건으로 섬서진(陝西鎭) 방어를 위한 진수총병제도가 운영되었다. 반드시 명이 이 지역에 수세적이었지는 않았다. 실제 청장고원(靑藏高原)에 대한 경략을 시행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산서진(山西鎭)의 관방진수총병제도(關防鎭守總兵制度)가 운영되면서 태행산의 후면을 중심으로 장성방어체계가 형성되었다.

10장은 명 후기 동북아정세가 급변하면서 구진장성방어체계가 17진 장성방어체계로 변화된 과정을 설명했다. 명 후기에 수도 후방의 장성방어체계를 강화하면서 명은 창평(昌平), 밀운(密雲), 계주(薊州), 선부(宣府)를 중시했다. 또한, 수도 북경의 배후지였던 계주를 분화시켜 영평(永平), 산해(山海), 준화(遵化), 통주(通州) 등 5진장성방어체계를 갖추었다.

11장은 명대 중앙에서 파견되어 무장세력을 견제하였던 구변장성진수태감(九邊長城鎭守太監)이 점차 외관화(外官化)되는 경향을 정리했다. 명은 변방의 군사지휘관이 세력화되는 것을 견제하고자 강력한 군대가 주둔한 북부 변강에 진수태감제도(鎭守太監制度)를 운영했다. 이

는 황제권력을 대변하는 환관을 주요 군진에 파견하여 군사지휘관을 감찰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군사지휘권은 군사지휘관에게 부여하면서도 이를 감시하였던 것이다. 이들 진수태감은 점차 상설화되면서 총독화(總督化)되었다. 이외에 감군(監軍)과 특무(特務)를 두어 군사권력에 대한 견제를 강화했다. 진수태감은 군사분야에 대한 감찰 뿐만 아니라 사법, 민정까지 주관하면서 외방의 권력을 등장했다.

12장은 명대 구변장성군진의 순무(巡撫)를 정리했다. 순무는 문관으로 해당 군사지역 및 유사시 파견하여 군무를 관장하도록 한 제도였다. 이러한 순무의 시작은 전대미문의 황제포로사건이 발생하였던 토목지변(土木之變)을 통해 문관이 변방을 순찰하여 감독하도록 하면서였다. 단순한 업무에서 점차 순무의 권력과 업무가 확대되면서 명 후기에는 구변장성군진에 순무는 군사화(軍事化)되었다.

13장은 명 중후기 구변장성총독제도(九邊長城總督制度)는 다양한 군사지휘관에 의해 운영되는 독특한 형식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총독, 순안어사, 진수태감, 총병관, 순무 등이 각자의 관장분야를 정하여 협업체제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총독은 군문(軍門)이라 하였으며, 순안어사는 감찰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찰원(察院), 도원(都院)이라 하였으며, 무관으로 군사지휘관(총병관), 문관으로 감찰을 담당(巡按御使), 황제를 대리한 파견환관(진수태감) 등을 통칭하여 일문양원삼당(一門兩院三堂)의 군정체제를 갖추었다.

### 3. 명대 군사사 풀이의 핵심주제 “구변장성군진”

이상과 같이 본 책자는 명대 군사사 뿐만 아니라 군제사, 문명사, 국경사로서 학술적 가치를 가진다. 본 책자를 읽으면서 느끼는 점은 여러

권으로 읽어야 할 명대 군사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솜씨가 묘하다. 이는 무엇보다 저자가 사료에 입각하여 명대 군사사 풀이의 핵심주제를 잘 선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명대 전쟁사, 군제사, 장성사, 군진사, 국경사가 종합적으로 녹여든 내용은 일목요연하면서도 논리적이다.

한국사를 전공하는 입장에서 본 책자는 조명관계 및 조선시대 군사사 연구에 매우 시사적인 내용을 전해준다. 기존 연구에서 조선시대 군사사, 외교사를 조선과 명, 조선과 여진 등으로 한정하여 접근하는 경향이 많은데, 군사관계, 외교관계는 국제질서의 복잡성에 기인하여 발생한다. 즉, 조선과 명 사이에 군사충돌 및 군사반목이 발생한다면 이는 조선과 명의 정치, 사회, 군사적 여건이 종합적으로 얽혀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선시대 대외관계사 연구에 본 책자는 매우 유용한 연구성과라 할 것이다.

장성학의 관점에서 장성을 다루기보다 군사사와 문명사의 측면에서 구변장성의 군진이 가지는 의미를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분명 본 책자는 학술적 가치가 높다. 중국의 변강 및 국경에 대한 개념을 논하면서 ‘요동사’라는 틀로 중국이라는 개념의 역사성을 거론한 김한규의 연구가 주목된다. 김한규는 1970년대 후반부터 漢代 “중국적 세계질서”를 연구하며, 중국적 세계질서의 이상과 실제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했다. 즉, 중국인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개념과 비중국인들이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개념의 차이가 있음에 주목하여 그 허상과 실상을 분별해볼 필요성을 절감했다.<sup>9)</sup> 이러한 관점은 중국이란 개념의 역사성에 대한 탐구로 이어져 국호로 중국을 사용한 1912년 중화민국 설립이전까지 중국은 국가개념이 아니라 문화양식과 가치체계,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경험 등을 공유한 역사공동체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동진(遼東鎭) 서술은 중국학계의 요동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한계가 있다. 2장에서 저자는 홍무제의 요동경

9) 金翰奎, 『古代中國の世界秩序研究』, 一潮閣, 1982, 1~2쪽.

략으로 백두산까지 관방체계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대 요동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중국학계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홍무연간 명의 요동지배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간과했다.<sup>10)</sup>

본 책자는 부분적인 인식 및 접근방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구변장성의 군진제도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구변장성의 군진을 군사적, 문명사적으로 종합하면서 명대 사상사의 흐름과 연관시켜 분석한 점도 본 책자의 큰 장점이다.

---

10) 김경록, 「명초 홍무제의 군사인식과 군사정책」, 『군사』99, 2016; 「홍무연간(洪武年間) 명(明)의 요동경략(遼東經略)과 조·명(朝明)관계」, 『군사』102, 2017. 홍무연간을 경과한 이후는 남의현의 연구가 참조된다.